

축산악취 민원 해마다 증가세

한림·애월지역 중심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지도·단속 시설 노후화 등 문제해결 한계... 시 "이달 집중 점검"

제주시 관내 양돈·축산악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양돈·축산악취 민원은 지난 2014년 152건에서 2015년 246건, 2016년 455건, 2017년 491건, 2018년 982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10월 현재 86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악취민원이 많은 한림과 애월지역을 중심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축산·양돈시설 노후화 등으로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달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총 93개소이지만 축사 밀폐 등 악취방지시설이 가

동되고 있는 농가는 51개소에 그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농가 42개소는 내년 7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내년 7월까지 이들 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는 차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악취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도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악취민원 다발시간대인 저녁 7시 이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 부지경계선에서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중순부터 악취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난 9월 이후부터는 농가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지금까지 점검을 잠정 중단해 왔다"며 "악취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날 재점검을 실시해 농가내부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등 6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관련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5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15건, 경고 1건, 허가취소 1건, 사용중지 1건, 과태료 2건(2,880만원), 과태료 38건(1,79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마을 의사결정 여성 배제없이 성평등하게"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15일 선포식·전달식 개최

제주 여성들의 마을 내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여성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만들고 이달 15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선포식과 전달식을 갖는다.

이번 성평등마을규약은 여민회가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과 애월읍 20개 마을에서 실시한 여성대표성 실태조사가 바탕이 됐다. 일부 마을에서 마을 내 성역할로 인한 여성들의

총회 참여 제한, 1세대 1표 마을규약, 마을 임원조직 여성 참여 저조 등 여성 과소대표성을 불러오는 문제들이 확인된 탓이다.

이에따라 여민회와 전여성제주도연합은 올해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해 성평등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성평등마을규약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표준조항을 검토했다. 성평등마을규약에는 "모든 주민회의는 마을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 "마을 내 인권문제(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등) 발생 시 주민회원 누구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사행 의무" 등을 담았다.

3개 마을에서는 마을 상황에 맞게 표준조항을 수정해 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성평등마을규약 선포·전달식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공문화하고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에게 표준조항을 전달해 도내 마을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제주여성회는 "최근 동물테마파크로 갈등을 겪는 선홍2리 마을 이장 선거와 관련 낡고 부실한 마을규약의 폐해가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시대에 맞는 '마을규약표준안'에 대한 논의가 도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이 제주 마을규약표준안 논의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용담체육공원 내 친환경놀이공간 조성

제주시는 2억여원을 투자해 용담체육공원 내 친환경 어린이놀이공간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 어린이놀이공간 조성은 기존 공원에 노후된 놀이기구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 탄성바닥재 등을 친환경 모래나 잔디밭으로 교체하고 조합놀이시설, 인디언하우스, 짚라인, 터널놀이 등 체험형 놀이시설을

설치했다.

또 느티나무, 왕벚나무, 꽃치자, 배롱나무 등을 놀이공간 주변에 식재해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쉬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는 식재된 잔디와 수목의 활착을 위해 오는 2020년 3월까지 놀이공간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그 기자



용담공원 친환경놀이공간. 사진-제주시 제공



서귀포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사진 왼쪽)과 사회복지사가 정책대상모임 노인 가정을 방문해 상담중인 모습. 사진-서귀포시 제공

병원·시설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통합돌봄 선도사업 본격 욕구따라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

슬관절과 요통 외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거동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수년째 지내던 의료급여 수급자인 90대 A할머니는 얼마 전 퇴원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할머니가 퇴원할 경우 혼자 생활할 것을 염려해 병원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을 통합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이다. 2021년까지 총 42억6000만원을 투입해 4개 유형별 정책대상모임 931명에게 서비스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 통합돌봄 안내창구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 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한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서귀포시가 의료급여 관리사와 책임의료기관 사회복지사, 읍면동과 협력해 할머니의 퇴원을 지원했고 재가의료급여로 식사와 돌봄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동지원비를 받아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닐 수 있고, 약사회에서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중인 할머니를 방문해 복용지도도 해준다. 욕실에는 미끄럼방지시설도 설치했다.

빠른 고령화로 정부 예측시점보다 4년 빠른 202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

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서귀포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을 통합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이다.

2021년까지 총 42억6000만원을 투입해 4개 유형별 정책대상모임 931명에게 서비스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 통합돌봄 안내창구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 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한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모델 유형은 ▷요양·종합·재활 병원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돌봄서비스의 연계·제공 부족 등으로 장기 입원중에 퇴원을 희망하는 노인 ▷골절, 중증질환으로 입원 또는 수술치료 후 퇴원하는 노인 ▷장기요양등급의(A·B 등급과 인지등급 포함) 노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가능도록 가사·이동 지원, 식사 제공, 방문목욕을

통합제공하는 노인 토탈케어서비스에서부터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과 골절사고 등을 예방하는 안심 주거환경개선 사업,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은빛 인생 맞춤형 행복설계, 전문가의 복약지도와 상담으로 약물의 오·투약으로 인한 약물사고를 예방하는 안심 복약지원사업, 퇴원하거나 병원 입원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한의 진료 등이다.

시는 민관협력력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 5일 수행기관 9곳과 협약도 체결했다. 통합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로 신청하면 가정방문 상담 후 서비스를 연계·제공받게 된다.

이해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그동안 분야별로 이뤄지던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시 유료공영주차장 만족도 조사해보니 "괜찮네"

서귀포시는 5개 유료공영주차장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81.9%가 호의적인 평가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유료주차장을 이

용하는 관광객, 시민, 주차장 인근 상가 관계자 등 165명을 대상으로 16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설문 내용 중 '전반적인 시설 만족도' 평가 항목에서는 81.8%가 '긍정'이라고 답했다. 또 유료주차장 인근 상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59.1%가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역 발전 기여도 부문에서도 응답

자의 78.8%가 '긍정'으로 답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통합콜센터 운영과 노상주차장 무인정산기 등 공영주차장 스마트화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적인 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차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태운기자 ity9456@ihalla.com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강력한 라이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앵배추브로컬리 무우 앵패 배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브로컬리 앵패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말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